

國際作家大會의 敎訓

文化實踐에 있어서의 善意志(一)

朴致祐

去年 六月 巴里에서 열렸으며 또한 不連에 그 두 번째 會sum을 가지려는 世稱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의 組織과 活動에 對해서는 이미 우리들 아이에서도 相當히 活潑한 論議가 잇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이 會sum이었다 하더라도 文壇 以外の 가령 우리와 같은 門外漢에게까지 것처럼 크나큰 愿銘을 주었을 理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觀察에 依할진댄 大會는 첫째로 그것이 單純히 「文學」을 아니고 널리 「文化의 擁護를 爲한 會sum이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둘째로는 文化의 擁護를 爲하여서는 오직 「파시스트」와의 抗爭이 잇을 따름이라는 것을 明白 且 嚴肅히 宣을 하였다는 점에서 會sum의 核心은 벌써 「文學」의 좁은 울타리를 完全히 뛰여넘어 簡節한 意味의 文化實踐, 特히 政治의 世界에 果敢한 一步를 드러놓코 잇는 것이다. 大會의 趣志가 文化의 擁護를 반파시즘의 路線에서 찾으려는 것이었으며, 大會의 決議가 또한 여기에 着된 以上, 問題는 벌써 文學의 問題가 아니라 政治의 問題인 것이다. 大會가 本來 「作家의 大會」이며 따라서 그것은當然의 「作家」라는 보담 더 좁은 「그룹」의 關心의 對象됨에 그칠 性質의 會sum이었을 터임에도 不拘하고, 文壇과는 何等의 關係조차 없는 小市民에게까지 深□한 反省의 材料를 提供하고 잇음도 이 까닭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運動은 單純한 한 개의 文學運動이라기 보담은 오히려 小市民作家의 反파쇼적인 政治運動의 하나로 보고 싶은 것이다. 小市民作家의 反파쇼적인 政治運動! 나는 이 運動을 이리케 規定하고 싶다.

文學에 關한 限 完全히 門外漢인 筆者가-文學 專門家は 勿論이고 그 所謂 「文學 愛好家」(小心한 一部 文藝 批評家の 公然한 署名?)도 안일 참으로 一個 怠鈍한 讀者에 不過한 筆者가 이 글을 草할 수 있게 됨도 이 때문이다. 나는以下 이러한 觀點에서 이 運動을 檢討해볼 作定이다.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의 開催 及 決議가 類달리 우리들의 關心을 끄는 點

은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事實 때문일 것이다.

(1)첫째로 이 運動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表面으로는 「文學運動」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놀랄만한 한 개의 政治的인 運動이다. 作家라는 人間들의 運動이니만큼 單純한 文學 上의 運動이여만 될 터임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事實로서는 이 運動의 參加한 「멤버-」中에는 假令 「줄리앵·방다」·「앙드레·지-드」같이 이 運動의 政治的 性格을 오히려 否定하며 警戒하고 잇는 分子도 없지 안함에도 不拘하고 會함이 反파쇼的 抗爭을 決議고 잇다는 點으로 보아 그것은 이미 한 個의 政治的인 運動으로 化한 것이다. 이 點이 興味잇는 것이다.

(2)둘째로는 이 運動은 本質的으로는 「小市民」의 反파쇼運動이라는 點이 興味있다. 다시 말하면 小市民이라는 階級層은 元來 파쇼的 誘惑에 對해서는 가장 弱한 社會層일 터임에도 不拘하고-讀者는 伊太利 及 獨逸의 파쇼制覇에 잇어서의 小市民層의 偉動을 想起하라-只今에 와서는 오히려 反對로 反파쇼戰線으로 轉向 加擔하기 始作하였다는 事實을 볼 수 잇는 것이니 이 點은 大端히 興味잇는 點이다.

웨나하면 파쇼化한 오늘이 市民社會가 이제는 小市民까지 깨끗이 自身の 敵對陣營에 追放함을 完了하였다는 이 事實이야말로 市民社會의 全 運命을卜한 貴重한 材料가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大會는 確實히 世界的 意義를 가진 會함이였다고도 할 수 잇는 것이다.

以下에 項을 나누어 各各追窮해 볼 作定이나 그 中 첫째 것은 文學과 政治와의 關係의 問題, 作家와 政治와의 關係의 問題와 關聯될 터이며 그리고 둘째 것은 小市民의 歷史的 自覺過程 및 그 運命에 關한 問題를 內包하고 잇는 것이다. 于先 첫째 것부터 追窮해 보기로 한다.